

#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특별감찰 방해·국정농단 목인 등 유죄 인정...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등은 무죄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62)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

을 상실시켰다"면서 우 전 수석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던 당시 이석수(55)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오히려 안중범

(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이를 덮으려 하고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는 등의 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문체부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K스포츠 클럽 관련 현장실태점검 부당지시, 국회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및 허위

증언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4일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국가정보원 동원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이삼민 기자

# 전주시, 지방세정 종합운영 '최우수'

### 전북도 실적 평가에서

전주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한 2017년 지방세정 종합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정 평가는 세수 증대 노력과 지방세 징수율,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등 15개 항목에 대한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세정 업무를 추진, 변화하는 세정 환경의 발 빠른 대응에 힘쓴을 지자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직무 연찬을 통해 업무 숙지 및 다양한 시책 개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위한 징수기법 토론회 등을 시행함으로써 선

진 세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재능기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DAY 운영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천 등 납세자와의 소통을 추진했다.

동시에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보다 301억원 증가한 총 6,250억원을 징수, 징수율도 1.9%p 증가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최우수 기관 선정은 전 세무담당 공무원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다각적인 선진 세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앞서가는 세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자문위 구성나서

전주시가 '제4대 전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시는 제3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와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제4대 평가자문위원회 민간위원 9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주민대표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소재하는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해당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자 접수 후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 거주 기간 및 봉사 기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4대 위원들과 함께 2018년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12개 청소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문 조사를 통한 주민 만족도 평가 40점과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 서류 평가 20점으로 이뤄진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는 22일 '2018년 상반기 시민모니터링 위촉식 및 교육'을 하고 선정된 시민 15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 전주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150명 위촉... 3개 분야, 10개 항목 직접 평가

전주시는 버스타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내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시는 22일 '2018년 상반기 시민모니터링 위촉식 및 교육'을 하고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시민 15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매월 7회 이상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은 이날 위촉 및 교육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행 실태, 친절도, 차량 관리 등 3개 분야·10개 항목에 대한 관찰 및 질의를 통한 운

행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 운전,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보하면 시정조치를 위해 해당 회사에 통보한다.

반대로 친절한 기사를 발견할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친절 사연을 추천·제보하면 향후 친절기사 선정에 반영한다.

시내버스 친절도 평가에 참여한 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 월 7회 이상 활동자에 한해 매

월 평가비 1만 원이 지원된다. 또 모니터링 활동 우수참여자에게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꾸준히 활성화시킨다면 시민이 직접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변화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전주시, 3월 6일~12일 신청받아

전주시는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로 LPG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의 정책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로 대상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60대다.

오는 26일 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공고문을 게시한 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시 차량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LPG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차로 바뀌면서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시 에너지전환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 10대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정운현 판사)은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16)양이 조모와의 갈등을 이유로 가출해 함께 지내던 중 돈을 벌어야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 310만원 받아

줬다.

또한 지난해 4월 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에서 B양이 PC방 남자직원과 웃으며 인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취득	